



코로나19 뉴스 프레임이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최종혁 JTBC 기자/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소지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홍보대학원 부교수

The Effects of COVID-19 News Frames on Support for Punishment Policy in Individuals

The Mediating Effects of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Anger*

Jonghyeok Choi**

(Reporter, JTBC/Master,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Jiyeon S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news frames in influencing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their effects on related policy support. Specifically, we selected episodic frame and thematic frame as the main frames of news coverage on COVID-19 and conducted an online experiment. The results showed that an episodic frame had greater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than a thematic frame, and that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in turn, led to greater levels of anger. Overall, the episodic frame led to greater support toward punitive policy through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ang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reaffirmed the differences in the roles of episodic and thematic news frames on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and explained the differential framing effects on policy support by examining a mechanism involving individual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ews.

Keywords: News fram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VID-19,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Anger

* This research is based on Jonghyeok Choi's M.A. thesis defended at Yonsei University (degree conferred in August 2020, Advisor: Jiyeon So). (본 논문은 최종혁의 석사학위 논문(2020년 8월, 지도교수: 소지연)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storist@jtbc.co.kr

*** jso@yonsei.ac.kr, corresponding author

1. 문제의 제기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후 ‘코로나19’로 약칭)이라는 신종 감염병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초기 우리나라와 일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된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퍼지는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2021년 8월 현재까지 약 2억1,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42만여 명이 숨졌으며, 국내에서도 약 23만 명이 감염됐고 2,200여명이 사망했다(2021년 8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사이트, <https://coronaboard.kr>).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에 대한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중 매체는 이러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수단이다(Ball-Rokeach & DeFleur, 1976). 특히나 위협이 심각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미디어 의존은 증가한다(Hirshberg, Dillman & Ball-Rokeach, 1986; Lowrey, 2004). 미디어 또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주영기·유명순, 2016). 따라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나 대응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미디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특정한 관점을 선택, 강조 또는 배제하여 사람들에게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틀, ‘프레임(frame)’을 통해 사건을 보여준다(Gitlin, 1980; Goffman, 1974; Iyengar, 1991). 그리고 프레임은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로서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의미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Tuchman, 1978). 따라서 같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프레임에 따라 현실은 재구성되고,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달라진다(Iyengar, 1991).

아이엔거(Iyengar, 1991)는 뉴스 보도를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나누었다. 일화적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와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나 묘사를 통해 보도하는 방식이고, 주제적 프레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통계 수치 등을 통해 배경이나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Iyengar, 1991; Iyengar & Simon, 1993). 아이엔거는 언론 보도에서 주제적 프레임보다 일화적 프레임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Iyengar, 1991), 국내 언론이 신종 감염병을 보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박이스리, 2018; 박주현, 2020; 송해룡·조항민, 2015; 최민음·정희수, 2018).

일화적 프레임으로 이슈를 접한 사람들은 사건 혹은 사회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관

점에서 이해하지만, 주제적 프레임으로 이슈를 접한 사람들은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Iyengar, 1991; 이준웅, 2001). 이로 인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이엔거(Iyengar, 1991)는 이슈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사회구조의 책임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준웅(2001)도 일화적 프레임으로 뉴스를 접한 수용자는 개인에게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인식에 따라 수용자들에게선 상이한 감정 반응이 일어나고(Weiner, 1985), 감정은 구체적인 행동 성향(action tendency)으로 이어진다(Frijda, 1986; Lazarus, 1991). 가령 사람들은 책임 소재의 대상을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공격”(Lazarus, 1991, p. 122)으로 여기게 되고, 이때 분노가 유발 된다. 그리고 분노는 그 대상을 처벌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Dillard & Peck, 2001; Frijda, 1986; Lazarus, 1991).

이를 종합하면, 뉴스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인지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이 같은 인지적 반응이 상이한 감정을 유발해 서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며, 미디어의 보도를 행동 지침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감염병을 다루는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다른 인식과 행동상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 신종 감염병 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의 서술 방식에 주목했다(김용, 2016; 박이스리, 2018; 박주현, 2020; 주영기·유명순, 2010, 2011; 최민음·정희수, 2018).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뉴스 보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로 특정한 위험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김승대, 2019; 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유성신·박현선·진범섭, 2016). 그러나 미디어는 동일한 사안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만큼, 뉴스 프레임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 감염병 뉴스 프레임이 방역 관련 정책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 효과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프레임 이론과 연구를 확장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인지적 반응인 책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인 부정적 감정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책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고,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 Lazarus, 1991)에 기반해 프레임의 효과를

매개하는 메커니즘을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반응이 프레임의 효과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나 미디어가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와 일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유발된 감정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신종 감염병과 뉴스 프레임

신종 감염병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Ball-Rokeach & DeFleur, 1976; Hirshberg et al., 1986).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해졌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주 정보원은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다(김선호·양정애, 2015; 김선호, 2020; 박아란·이소은, 2020). 미국 등 6개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를 접하는 출처로 언론사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뉴스 미디어가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란·이소은, 2020).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는 구체적인 플랫폼으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김선호, 2020).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이나 대응 행동 방안을 확인하는 만큼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미디어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닌 특정 정보를 “선택, 강조, 축소 또는 배제해 사건이나 인물의 특정 측면이나 속성을 두드러지게 보임으로써 현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Gitlin, 1980, p. 7). 고프만(Goffman, 1974)은 이를 “사건의 재편에 도움을 주는 인지적 구조”(p. 10)라고 정의하면서 ‘해석의 도표’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이 사람들의 선택과 해석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 아이엔거(Iyengar, 1991)는 프레임을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미묘한 변화”(p. 11)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에 따라 표현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프레임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운데 특정한 사안을 부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가 이슈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 2010). 특히 특정한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틀로 보도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관점에 따른 언론 보도는 수용자가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연희, 2017).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미디어는 프레임을 통해 보여주고, 사람들은 뉴스 프레임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아이엔거(Iyengar, 1987, 1991)는 기사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뉴스 프레임을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특정 이슈를 보도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달하는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이슈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통계나 증거, 이슈의 배경이나 원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주제적 프레임은 현실을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도록 도와주고, 사회문제의 인과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이미현, 2000; 이준웅, 2001).

국내 언론사들의 코로나19 보도 프레임을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 모두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레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2020). 연구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면을 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모든 단계에서 일화적 프레임이 더 사용되었고,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대유행기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2020).

주영기와 유명순(2011)은 신종플루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진단과 예후 프레임으로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고, 상황을 진단하는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국내 10개 일간지 1면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진단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대응에 대한 참여나 지지를 유도하는 프레임은 적었다(박이스리, 2018).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진단 프레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건 자체와 결과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일화적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예후 프레임은 사건의 배경과 해석에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주제적 프레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을 다루는 뉴스 보도의 대표적인 형식적인 프레임이자, 국내 언론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프레임과 책임 인식

귀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한다(Heider, 1958). 귀인이란 사건의 원인을 추론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하이더(Heider, 1958)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여기는지, 타인 혹은 외부의 환경에 있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귀인은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Iyengar, 1991). 아이엔거는 사건을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는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테러, 강력범죄, 빈곤, 실업 문제 등 이슈의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사회구조의 책임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Iyengar, 1991; Iyengar & Simon, 1993).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을 지나치게 개인화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이미나, 2015; Jamieson & Campbel, 1982).

미국 언론의 범죄 뉴스에서도 일화적 프레임은 마리아나 재배자를 비이성적, 비도덕적인 일탈자로 묘사해,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은 외면하게 만들어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llstone, 2000). 이준웅(2001)도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는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도 사회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웅, 2001). 노인 범죄와 관련된 이슈(이미나, 2015), 조기 유학과 관련한 쟁점(이미현, 2000)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 관련 뉴스를 주제적 프레임으로 본 사람들은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방역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화적 프레임으로 본 사람들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상황에 주목했다. 실험이 진행된 시점(2020년 4월)을 기준으로, 국내 감염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등으로 인해 국내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에 의해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 사이에 책임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1.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집단은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한 집단 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뉴스를 주제적 프레임으로

로 접한 집단은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집단 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이다.

3) 책임 인식과 분노

최근 프레이밍 효과 연구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인지적인 프레이밍 효과에서 감정 반응의 과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Gross, 2008; Lecheler, Schuck, De Vreese, 2013; Nabi, 2003). 아울러 인지적인 효과만으로는 프레이밍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프레임에서 유발된 감정은 프레이밍 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Lecheler et al., 2013; Powell, Bommgaarden, Swert, & De Vreese, 2014). 이때 프레임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Igartua, Moral-Toranzo, & Fernández, 2011; Nabi, 2003; Oatley, 1992).

감정의 경우 위협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포, 걱정,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개별 감정은 ‘핵심 관계 주제(core relational theme)’를 통해 유발된다(Lazarus, 1991). 라자루스(Lazarus, 1991)에 따르면 공포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압도적인 물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p. 122), 불안은 “위협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p. 122) 유발된다. 분노는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강한 공격이 있다고 느낄 때”(p. 122),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을 때”(p. 122) 발생한다. 유사한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위협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핵심 관계 주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다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비(Nabi, 2002)는 범죄의 잠재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사람들의 공포를 유발시키고, 경제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공포를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요소가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공포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난 관련 보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험을 강조한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들이 숫자적 표현이나, 도표 등이 포함된 이성적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다(임인재·나은영, 2019). 결국 공적 이슈를 개인의 사례, 사건 중심으로 묘사하는 일화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는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특정한 개인이 존재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사건이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면 관련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

러가 커졌다는 데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분노가 유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제적 프레임은 일화적 프레임에 비해 감정적인 접근 보다는 일반적인 통계나 증거를 통해 이슈의 배경이나 원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노의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허석재·민영, 2010).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람들은 책임 소재의 대상을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공격”(Lazarus, 1991, p. 122)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유발되는 감정은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종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뉴스 보도와 관련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감염병 확산 초기 사람들은 불안, 공포, 충격, 분노 순으로 느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불안, 분노, 충격, 공포 순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조사, 2020, 3, 3).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이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신천지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강한 공격”(Lazarus, 1991, p. 122)으로 여기게 되면서 분노의 감정이 더 크게 유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효과 연구에서 인지적인 효과와 정서적인 감정의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여 인지적 효과에 따라 감정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매커니즘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귀인이 나타나고, 그러한 책임귀인에 따른 감정 반응의 인과관계를 확인해봄으로써 기존 프레임링 효과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기설 2.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데 대해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낄 것이다.

4)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라자루스(Lazarus, 1991)의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에 따르면, 감정은 어떤 행동을 동기화하려는 경향과 결부돼 있고, 특정 감정이 유발되면 그에 따른 특유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아울러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Keltner & Lerner, 2000; Lerner, Valdesolo, & Kassam, 2015).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을 조심하는 행위를 유도하지만, 분노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직접 위험에 맞서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Lerner & Keltner, 2000).

이때 분노는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강한 공격이 있다고 느낄 때 유발되는 감정(Lazarus,

1991)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을 처벌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Dillard & Peck, 2001; Frijda, 1986; Lazarus, 1991). 가령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분노의 감정은 가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bi, 2002). 테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분노는 두려움보다 테러범의 국외 추방과 같은 보복적 정책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

귀인이론에서도 책임귀인은 감정 반응을 유발하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Weiner, 1985). 감정이 책임귀인과 행동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길 땐 통제 대상에 대해 분노나 혐오를 느끼고, 가해자 처벌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2009; Weiner, 1985). 예를 들어,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항만 당국이 삼성의 바지선을 향해 경고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람들은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삼성을 향한 분노가 커졌고,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2009). 기업에 대한 분노와 불매 운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기업이 사고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분노가 증가하고, 그 분노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현·김선호, 2014).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레임에 따른 인지적인 효과가 감정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정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때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처벌’과 ‘예방’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김호기, 2014, 2015). 연구자에 따르면 재난은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결합해 발생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법적 대응 방법이고, 사전에 마련해 놓은 물리적, 무형적인 위험방지 수단 등을 통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다(김호기, 2014).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이라는 위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처벌하는 정책으로,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첫 코로나19 유행이 찾아들던 시기였지만,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외에 거주중인 교민과 유학생 등이 국내로 귀국하기 시작했다.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차단인 입국금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김잔디, 2020). 따라서 정부가 택한 주요한 정책은 위험 요소를 확산시키는 대상에 대한 처벌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귀국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가 격리

수칙 강화하고,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와 손목밴드(안심밴드) 부착 등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와 관련한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더 크게 느끼고 그에 따라 유발된 분노를 매개로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구체적으로는 이를 어긴 개인을 처벌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집단은 확산 우려가 개인의 책임에 있다는 인식과 그에 따라 유발된 분노를 매개로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을 더 지지할 것이다.

5) 통제변인: 메시지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

뉴스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본 연구의 실험이 진행되기 전인 4월 20일까지 주요 매체의 뉴스 기사 100만 3000여 개 중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12만 1000여 개로 집계됐다. 뉴스 8건 가운데 1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였던 셈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메시지에 오랜 시간 노출돼 지칠 경우, 사람들은 메시지 피로감(message fatigue)을 느끼게 된다(Kim & So, 2018; So, Kim & Cohen, 2017). 연구자들에 따르면 메시지 피로감은 메시지 회피(message avoidance), 짜증(annoyance),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 둔감화(desensitization)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메시지에 과도하게 노출돼 피로감이 높아질 경우, 메시지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지거나 설득 효과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So, 2018). 이는 곧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유사한 메시지 내용이 과도하게 축적돼 익숙해질 경우, 메시지 피로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질 수 있고, 메시지의 설득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 상황을 접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그리고 관련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코로나19 관련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이 높을 경우, 위험 상황에 따른 책임 인식을 다르게 판단한다거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 피로감을 앞선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에 포함시켜 이 변인이 주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처한 여러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김교현·권

선중, 2009). 연구지들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위협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재난의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대처방식, 경제적 피해, 신체적 건강 피해 그리고 교육 및 소득 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한 위협인식과 관련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 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준혁·정승민, 2011; Dowler, 2003). 또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취약성 변수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줄어든 집단일수록, 가족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현·권선중, 2009; 이정람·김도균, 2011).

이때 신종 감염병 등 자연 재해는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Briere & Elliott, 2000). 실제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인적 피해 못지않게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유발해내고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출과 이동,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등이 제한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김연정, 2020; 김지훈, 2020; 이영재, 2020).

따라서 경제적인 피해 정도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과 함께 정책 지지와 같은 대응 행동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피해 정도를 앞선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지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피로감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한 a)책임 인식, b)분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한 a)책임 인식, c)분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조작한 2개의 실험 메시지를 제작하였다. 실험은 온라인 조사 전문 업체인 마이크로밀엠브레인(<https://embrain.com>)에 의뢰해,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업체가 보유한 패널 가운데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각 실험 집단에 250명씩 총 500명을 할당 표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메시지에 노출되기 전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 피로감을 측정하였다. 이후 각 집단 별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 기사를 제시하였고, 자극물에 노출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30초가 지난 뒤 이어지는 설문 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자극물에 노출된 다음, 가장 먼저 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을 위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책임 인식과 감정, 정책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정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를 측정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2) 실험 자극물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기사 형태로 조작하였다. 자극물로 활용한 이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1월 27일 31번째이자 대구 지역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신규 확진자는 2월 29일 하루 최대 900명이 넘게 발생한 이후, 3월 초 500-600명, 3월 말 1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4월로 접어들면서 두 자릿수 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고, 현지에서 머물던 교민과 유학생 등이 귀국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김상훈, 2020; 신재우,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라는 시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새롭게 펼쳐지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실험 자극물의 이슈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자극물은 선행연구(이준웅, 2001; Iyengar, 1991)를 참고하여 실제 온라인 뉴스 기사를 수집해,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조작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묘사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적 프레임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통계 수치를 통해 제시하였다. 프레임은 제목과 리드가 가장 중요한 장치(Pan & Kosicki, 1993)라는 점을 고려해 각 자극물의 제목과 첫 문장에서 프

레이미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정책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각 실험 자극물의 마지막 문단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매체와 기자에 대한 편향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기사라는 점은 알려주되,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았다(부록 II).

3) 실험 자극물 조작 점검

프레임을 다르게 제작한 자극물이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점검 방법은 두 개의 자극물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된 실험 참가자들이 메시지를 읽은 직후,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의 특성을 보여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의 특성을 묻는 질문은 '이 기사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확산 우려와 관련해 개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M = 4.16, SD = 1.47$), 주제적 프레임의 특성을 묻는 질문은, '이 기사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확산 우려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M = 4.69, SD = 1.40$)를 각각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1,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0으로 코딩한 뒤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4.46, SD = 1.53$)은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3.87, SD = 1.34$)에 비해 자극물이 더 일화적 프레임의 특성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t(498) = 3.44, p < .001$). 주제적 프레임의 특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5.13, SD = 1.14$)은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4.24, SD = 1.49$)에 비해 자극물이 더 주제적 프레임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응답했다($t(498) = -7.44, p < .001$). 이를 통해 뉴스 프레임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4) 주요 변인 측정

(1) 책임 인식(Perception of responsibility)

책임 인식이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데 대한 책임 소재의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로 정의하였다. 책임이 개인에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책임

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은 해외에서 입국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M = 4.98, SD = 1.53),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은 해외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M = 4.50, SD = 1.62)로 각각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분노(Anger)

분노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가 크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이후 유발되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방법은 감정이 메시지 설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DeSteno, Petty, Rucker, Wegener, & Braveman, 2004)를 참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이 기사를 읽는 동안 경험한 느낌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통해 감정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짜증나는/화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느끼지 않는다, 7 = 매우 느낀다)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분노는 '제시된 기사를 보았을 때 귀하는 얼마만큼 짜증나는 감정을 느꼈습니까?', '제시된 기사를 보았을 때 귀하는 얼마만큼 화나는 감정을 느꼈습니까?'(M = 4.95, SD = 1.41, r = .84)로 측정하였다.

(3) 정책 지지(Policy support)

정책 지지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감염 확산 위험을 높이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손목밴드(안심밴드)를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자 가운데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2개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M = 5.94, SD = 1.11, r = .74).

(4) 메시지 피로감(Message fatigue)

메시지 피로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에 장시간 노출돼 지친 상태로 정의하고, 선행연구(So et al., 2017)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측정 문항을 수정해 사용하였다. '요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가 정말로 너무 많다', '몇 주간 계속해서 들으니,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는 거기서 거기 같다',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가 진력이 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는 지루하다' 등 4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M = 4.16$, $SD = 1.32$, $\alpha = .85$).

(5) 경제적 타격(Economic blow)

경제적 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로 정의하였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습니까?’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없다, 7 =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로 측정하였다($M = 4.55$, $SD = 1.59$).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 뉴스 프레임이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레임이 정책을 지지하는 과정을 책임 인식과 분노가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5와 구조방정식 통계 패키지인 AMOS 26을 사용하였다.

뉴스 프레임에 따른 책임 인식(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연구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뉴스 프레임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분노(연구가설 3)의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변량 분석 방법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오차와 잔차를 고려할 수 있고,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간명성을 고려하고 χ^2 통계량이 갖는 한계를 수정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고려하여 확인하였다. 경로 분석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정규분포 조건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김주환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첨도 < 4) 기준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항목으로 측정되지만, 관측변수가 해당 개념을 완벽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단일항목을 잠재변수로 활용하고 측정오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08).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프레임은 더미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고, 책임 인식에 대해선 편의상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 Latent variable | Observed variable | M | SD | Skewness | Kurtosis |
|---|-------------------|------|------|----------|----------|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 4.98 | 1.53 | -.53 | -.24 |
| Anger | Anger 1 | 4.90 | 1.48 | -.45 | -.14 |
| | Anger 2 | 5.00 | 1.47 | -.50 | -.12 |
| Policy support | Policy support 1 | 5.83 | 1.29 | -.89 | -.03 |
| | Policy support 2 | 6.06 | 1.10 | -1.00 | .44 |

2) 변수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은 정당화 가능한 일반적인 모형을 특정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분석되어야 한다(김주환 등, 2009).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처벌 정책 지지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외생변수로 상정한 프레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 | Frame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Anger |
|---|-------|---|-------|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11* | | |
| Anger | .32** | .26** | |
| Policy support | .12** | .38** | .37** |

No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3) 연구가설 검증

(1) 프레임이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1〉은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 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프레임을 독립변수(일화적 = 1, 주제적 = 0)로, 개인에 대한 책임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수를 적용한 다음 일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공변량 가운데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뉴스 프레임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492) = 5.98$, 부분 $\eta^2 = .01$, $p < .05$).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5.15$, $SD = 1.51$)이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4.82$, $SD = 1.53$) 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COVA on Effect of Frame on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 <i>df</i> | <i>F</i> | η^2 | <i>p</i> |
|-----------------------|-----------|----------|----------|----------|
| Covariate | | | | |
| Sex | 1 | 0.49 | < .01 | .49 |
| Age | 1 | 1.26 | < .01 | .26 |
| Years of schooling | 1 | 0.25 | < .01 | .62 |
| Income per month | 1 | 0.11 | < .01 | .75 |
| Message fatigue | 1 | 0.16 | < .01 | .69 |
| Economic blow | 1 | 0.39 | < .01 | .53 |
| Experimental stimulus | | | | |
| Frame | 1 | 5.98 | .01 | < .05 |
| Error | 492 | (2.32) | | |

Note. The numbers in the parenthesis indicate MSE.

〈연구가설 1-2〉는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 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프레임을 독립변수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수를 적용한 다음 일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ANCOVA on Effect of Frame on Perception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 | df | F | η^2 | p |
|-----------------------|-----|--------|----------|--------|
| Covariate | | | | |
| Sex | 1 | 0.01 | < .01 | .96 |
| Age | 1 | 3.08 | < .01 | .08 |
| Years of schooling | 1 | 0.62 | < .01 | .43 |
| Income per month | 1 | 1.30 | < .01 | .26 |
| Message fatigue | 1 | 32.33 | .06 | < .001 |
| Economic blow | 1 | 12.72 | .03 | < .001 |
| Experimental stimulus | | | | |
| Frame | 1 | 0.67 | < .01 | .41 |
| Error | 492 | (2.40) | | |

Note. The numbers in the parenthesis indicate MSE.

공변량 중 메시지 피로감($F(1, 492) = 32.33$, 부분 $\eta^2 = .06$, $p < .001$)과 경제적 타격($F(1, 492) = 12.72$, 부분 $\eta^2 = .03$,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뉴스 프레임이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92) = 0.67$, 부분 $\eta^2 < .01$, $p = .41$).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4.52$, $SD = 1.66$)이 주 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M = 4.47$, $SD = 1.58$) 보다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가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2>는 기각되었다.

(2) 책임 인식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예측하였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분노를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인을 적용한 다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 492) = 5.62$,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6%($R^2 = .07$, $Adj R^2 = .06$)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통제변인 가운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분노 발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Effect of Percepti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on Anger

| | B | SE | β | t | p |
|---|-------|-----|---------|------|--------|
| Constant | 3.35 | .43 | | 7.81 | < .001 |
| Control variable | | | | | |
| Sex(Male=ref.) Female | .15 | .12 | .05 | 1.19 | .25 |
| Age | -.002 | .05 | -.002 | -.05 | .83 |
| Years of schooling | .09 | .06 | .07 | 1.60 | .11 |
| Income per month | -.01 | .04 | -.01 | -.27 | .78 |
| Message fatigue | -.03 | .05 | -.03 | -.65 | .37 |
| Economic blow | .04 | .04 | .04 | .94 | .51 |
| Independent variable | | | | | |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24 | .04 | .26 | 5.88 | < .001 |
| $F(7,492) = 5.62, p < .001$ | | | | | |
| $R^2 = .07, Adj R^2 = .06$ | | | | | |

(3)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3〉은 일화적 프레임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의해 유발된 분노를 매개로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을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프레임은 더미 변환(일화적 프레임 = 1, 주제적 프레임 = 0)하여 투입하였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값을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기술한 것과 같이, 정책 지지와 프레임, 개인 책임 인식, 분노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뉴스 프레임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매개로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hi^2 [7] = 100.31, p < .001, CFI = .92, TLI = .91, RMSEA = .13$. 브라운과 큐덱(Browne & Cudeck, 1993)에 따르면 RMSEA 값이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한 적합도를 의미한다(Bentler, 1990). 적합도 기준을 근거로 모형을 평가한 결과 RMSEA 값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에 사용되는 요인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 모형오류가 작아도 자유도가 낮아서 RMSEA 값이 크게 나올 수 있다(홍세희, 2000). 이러한 경우 홍세희(2000)는 RMSEA 값이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RMSEA > .10), CFI와 TLI가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CFI, TLI > .90), RMSEA 값이 작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므로, CFI와 TLI 위주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과 개인 책임 인식이 단일 항목으로, 분노와 정책 지지가 두 문항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가설 3>을 검증하였다. <Figure 1>에 제시된 경로계수를 통해 잠재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프레임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11, p < .05$)을 보였는데, 이는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사람은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사람에 비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분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28, p < .001$)을 미치고, 분노는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43, p < .001$)을 미쳤다. 이는 앞서 개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2>와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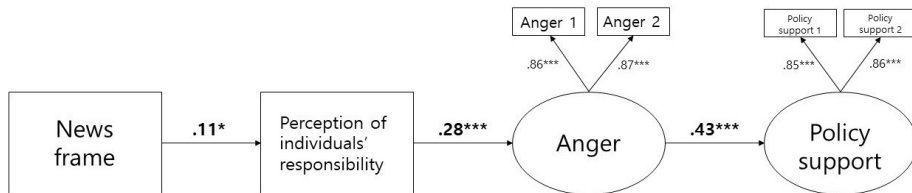


Figure 1.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 $p < .001$, * $p < .05$)

뉴스 프레임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000번의 리샘플링을 실시하였고(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편향 수정된(bias-corrected) 부트스트랩 기반 95% 신뢰구간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프레임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 분노, 정책 지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Variables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Direct | Indirect | Total |
|---|---|--------|----------|-------|
| News frame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33* | .00 | .33* |
| | Policy support | -.01 | .03* | .02 |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Anger | .23** | .00 | .23** |
| Anger | Policy support | .37** | .00 | .37** |

Note. The numbers 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ootstrap sample extracted 1,000 times.

* $p < .05$, ** $p < .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프레임은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b = -.01, p = .98$), 개인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ndirect = .03, p < .05$). 즉 개인 책임 인식과 분노는 프레임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음을 나타낸다. 모형 내에서 개인 책임 인식과 분노를 고려하였을 때, 뉴스 프레임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직접효과($b = -.01, p = .98$)보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bindirect = .03, p < .05$)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각 매개변수의 효과와 유의성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뉴스 프레임이 개인 책임 인식과 분노를 거쳐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bindirect = .03, p < .05$)은 부트스트랩 기반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주제적 프레임 보다 일화적 프레임이 개인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분노를 더 유발하여, 정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Table 7.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of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and Anger

| Path | Estimate | 95% CI | p |
|--|----------|-----------|-------|
| News frame → Perception of individuals' responsibility → Anger → Policy support | .03 | .01 ~ .07 | < .05 |

Note. The reported figure is non-standardized factor, and bootstrap sample was taken 1,000 times.

(4) 메시지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의 영향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으로 인해 국내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뉴스가, 책임 인식과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1-1>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메시지 피로감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92) = 0.16, \text{부분 } \eta^2 < .01, p = .69$). 다만, <연구가설 1-2>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메시지 피로감($F(1, 492) = 32.33, \text{부분 } \eta^2 = .06, p < .001$)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 피로감이 클수록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메시지 피로감은

분노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 p = .37$).

〈연구가설 1-1〉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경제적 타격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492) = 0.39$, 부분 $\eta^2 < .01, p = .53$). 〈연구가설 1-2〉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공변량으로 투입되었던 경제적 타격($F(1, 492) = 12.72$, 부분 $\eta^2 = .03,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경제적 타격이 클수록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한 검증 결과, 경제적 타격은 분노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51$).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함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때 미디어는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른 프레임을 통해 전달하고, 프레임은 서로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이 신종 감염병과 관련한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하는지,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하는지에 따라 상황에 대한 책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부정적 감정인 분노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이 뉴스 프레임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사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에 맞게 할당 한 후, 202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실험을 실시해 실험 집단별로 250명씩 총 500명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따라 책임 인식이 다를 것이라는 프레임의 효과는 일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보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 우려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일화적 프레임의 경우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연구(Iyengar, 1991)를 지지하는 결과다. 다만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은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게 되는 일화적 프레임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실험 연구에서 자극물로 제시한 프레임 기사의 주된 내용이 자가 격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시문 자체에 의해 개인의 책임에 귀인하는 결과가 유의하게 도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감정이 핵심 관계 주제(relational theme)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Lazarus, 1991)을 지지하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커진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분노가 유발된 것이다. 신종 감염병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할 경우,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분노의 감정을 증가시켜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일화적인 프레임의 뉴스 보도가 처벌의 성격을 지닌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를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신종 감염병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일화적인 프레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박이스리, 2018; 박주현, 2020; 주영기·유명순, 2011)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신종 감염병 위험 상황의 책임이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 성격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즉, 신종 감염병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했을 경우, 방역 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명시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지목하지 않더라도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귀인할 수 있는 만큼 특정 프레임에 대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주제적 프레임은 예상과 달리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적 프레임 보다 일화적 프레임의 귀인 효과가 더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일화적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만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 일화적 프레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프레임에 따라 인지적인 평가인 책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고, 프레임에 따른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의해 분노라는 감정이 더욱 유발되고,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처

별 정책을 지지하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종 감염병 보도 프레임이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효과를 가지며, 그러한 프레임의 영향력이 수용자들의 '인지-감정'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을 검증한 것이다. 특히 부정적 감정인 분노는 프레임에 따른 인지적인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라는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미디어의 특정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용자들은 프레임 그대로 인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Druckman, 2001),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수용자의 인식을 프레이밍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감정도 프레이밍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결국엔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의 행동 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뉴스 프레임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적 반응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인 감정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 보도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수용자들의 인식과 함께 감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일반 수용자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감정을 프레임할 수 있는 재난 보도 매뉴얼 등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인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피로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정도가 사람들의 인지적 반응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이 클수록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경우, 방역 책임 있는 정부에게 더욱 책임을 귀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위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지만 뉴스 프레임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의 범위를 다양하게 하여, 그에 따른 효과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임은 은유·사례·묘사와 같은 다양한 프레임 장치와 근거·결과·호소 등과 같은 다양한 추론 장치를 활용해 '해석의 패키지'를 제공한다(김경모·정은령, 201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장치를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로 제시된 기사의 경우 조작 점검 결과 각각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은 확인되었지만, 자극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극물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자가 격리'를 다루고 있고, 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개인의 책임에 기인한 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었다는 점도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대응 행동을 처벌 정책에 대한 지지로 살펴보았는데,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대응 행동이 존재한다. 예방, 회피 등 수용자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행동을 변인으로 삼았다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레임에 의해 유발된 감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인지적 반응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분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공중의 감정 반응은 다양하다. 따라서 공포, 불안, 슬픔, 우울 등 다양한 감정 반응을 포함한다면 더욱 폭 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감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을 측정하였지만, 제시된 메시지에 의해 유발된 감정인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메시지에 노출되기 전 신종 감염병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을 측정한 다음 메시지 노출 후 감정 반응을 측정해 그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는 정치적인 이슈로 치환되어 왔고(송진미, 2020), 언론의 보도 또한 각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집중된 의제가 다르게 나타났다(박주현, 2020;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파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더욱 보완하여 향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면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위험 상황에 언론 보도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과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riere, J. & Elliott, D. (2000).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sequelae of natural disaster exposure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4), 661-67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DeSteno, D., Petty, R. E., Rucker, D. D., Wegener, D. T., & Braverman, J. (2004). Discrete emotions and persuasion: the role of emotion-induced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1), 43.
- Dillard, J. P. & Peck, E. (2001). Persuasion and the structure of affect. Dual systems and discrete emotions as complementary model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1), 38-68.
- Dowler, K. (2003). Media consumption and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 and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punitive attitudes, and perceived police effectiven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0(2), 109-126.
- Druckman, J. N. (2001).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23(3), 225-256.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Gross, K. (2008). Framing persuasive appeals: Episodic and thematic framing, emotional response, and policy opinion. *Political Psychology*, 29(2), 169-192.
- Hallstone, M. (2000). Depicting the pirates of the emerald triangle: An ethnographic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n marijuana growers appearing in the San Francisco chronicle, 1982-1995.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7(2), 45-6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NY: Wiley.
- Hirshberg, P., Dillman, D., & Ball-Rokeach, S. (1986). 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Responses to the eruption of Mount St. Helens. *Media, audience, and social structure*. Beverly Hills, CA: Sage.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Igartua, J. J., Moral-Toranzo, F., & Fernández, I. (2011). Cognitive, attitudinal, and emotional effects of news frame and group cues, on processing news about immigration.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3*, 174-185.
- Iyengar, S. (1987). Television news and citizens' explanations of national affair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815-831.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Jamieson, K. H., & Campbell, K. K. (1982). Rhetorical hybrids: Fusions of generic elements. *Quarterly Journal of Speech, 68*(2), 146-157.
- Jeong, S. H. (2009). Public's Responses to an oil spill accident: A test of the attribution theory and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Public Relations Review, 35*(3), 307-309.
- Kim, S., & So, J. (2018). How Message Fatigue toward Health Messages Leads to Ineffective Persuasive Outcome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s of Reactance and Inatten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3*(1), 109-116.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834.
- Lecheler, S., Schuck, R. T., & de Vreese, C. H. (2013). Dealing with feelings: Positive and negative discrete emotions as mediators of news framing effects. *Th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38*(2), 189-209.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ement and choice. *Cognition & emotion, 14*(4), 473-493.
- Lerner, J. S., Gonzalez, R. M., Small, D. A., & Fischhoff, B. (2003).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2), 144-150.
- Lerner, J. S., Li, Y., Valdesolo, P., & Kassam, K. S. (2015). Emotion and decision mak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1), 799-823.

- Lowrey, W. (2004). Media dependency during a large-scale social disruption: The case of September 11.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3), 339-357.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99-128.
- Nabi, R. L. (2002). Anger, fear, uncertainty, and attitudes: A test of the cognitive-functional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69(3), 204-216.
- Nabi, R. L. (2003). Exploring the framing effects of emotion: Do discrete emotions differently influe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seeking, and policy preference? *Communication Research*, 30(2), 224-247.
- Oatley, K. (1992). *Best laid schemes: The psychology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6.
- Powell, T. E., Bommgaarden, H. G., Knut De Swert., & de Vreese, C. H. (2014). A clearer picture: The contribution of visuals and text to fram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65(6), 997-1017.
- So, J., Kim, S., & Cohen, H. (2017). Message fatigue: Conceptual definition, operationalization, and correl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84(1), 5-2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y Review*, 92, 548-573.

최초 투고일 2021년 02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07월 16일
 논문 수정일 2021년 07월 30일

부록 I. 참고문헌

- 김경모·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전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109-136.
- 김교현·권선중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후 스트레스 반응: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권 1호, 89-125.
- 김민규·김주환·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훈 (2020, 4, 5). 추가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 '입국자 관리' 고민 커지는 당국.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5029300017?input=1195m>
- 김선호 (2020). 코로나19 관련 시민 인식 조사: 집회 및 시위제한과 개인정보수집은 “방역을 위한 필수조치”. <Media Issue>, 6권 5호, 1-12.
- 김선호·양정애 (2015). 메르스 보도: '빠른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 원해. <Media Issue>, 1권 9호, 1-6.
- 김승대 (2019). 일부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인식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권 3호, 447-454.
- 김연정 (2020, 5, 17). '코로나 고용한파' 1~4월 실직자 208만명 역대 최대.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6045200002?input=1195m>
- 김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39-50.
- 김잔디 (2020, 3, 31). 정부 “자국민 입국금지 시행국도 없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099751017?input=1195m>
- 김지훈 (2020, 5, 23). 코로나 막다 굶어 죽을 판... 방역과 경제 사이 고민에 빠진 지구촌.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8840&code=11141100&cp=nv>
- 김호기 (2014).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형사정책연구>, 25권 3호, 89-125.
- 김호기 (2015).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26권 4호, 5-32.
- 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19호,

123-152.

- 류준혁·정승민 (2011). 지역 주민의 범죄 위험 인식 분석에 대한 연구-구체적 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7권 3호, 1-24.
- 박아란·이소은 (2020). 인포데믹 탐색하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6개국 조사. <Media Issue>, 특별호, 1-12.
- 박이스리 (2018). <신종 감염성 질환 언론보도 프레임-신문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1 면 텍스트/ 시각적 정보 내용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서울대 보건대학원 (2020).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 조사(2차_유명순 외).
- 송진미 (2020). 재난 상황에서의 이슈 선점과 정당 지지: 코로나 19 발생 전·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21권 4호, 63-91.
- 송해룡·조항민 (2015).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권 6호, 45-68.
- 신재우 (2020, 4, 6).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절반은 해외입국자와 가족·지인.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122100017?input=1195m>
- 유성신·박현진·진범섭 (2016). 병행과정 확장 모델을 적용한 메르스 예방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주관적 지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8권 2호, 237-273.
- 이미나 (2015). 사회문제의 일화 vs. 주제적 프레임 방식에 따른 인지, 정의적 효과 비교. <시민교육연구>, 47권 3호, 147-183.
- 이미현 (2000). <신문기사의 쟁점 제기 방식이 독자의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재 (2020, 5, 11). 코로나발 충격에 4월 실업급여 조원...월 기준 역대 최대.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4-4200004?input=1195m>
- 이정림·김도균 (2011). 허베이 스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피해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취약성 변수: 사고 후 2008년 9월과 2010년 10월 시점의 패널자료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15권 2호, 269-298.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 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 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 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 (2010).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457-498.
- 임연희 (2017). '충청 대망론'에 대한 보도프레임 분석: 대전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권 2호, 19-39.
- 임민재·나은영 (2019). 태풍 재난 보도 프레임과 구체적 감정의 차별적 영향: 유발된 슬픔과 분노의 매개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3권 3호, 33-68.
- 장정현·김선호 (2014). 공감, 책임귀인, 그리고 분노가 이타적 처벌 의사에 미치는 영향: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97-122.
- 주영기·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381.
- 주영기·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진단과 예후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30-54.
- 주영기·유명순 (2016). 위험사회와 위험인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사이트(<https://coronaboard.kr>)
- 최민음·정희수 (2018).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지카 바이러스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7호, 609-619.
-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코로나 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148-189.
- 허석재·민영 (2010). 사이버모욕죄 보도의 프레이밍 효과: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2호, 48-68.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권 1호, 161-177.

부록 II. 실험 자극물

1. 일화적 프레임 실험 자극물

게이미 뭐기에... 자가 격리 중 PC방 드나든 유학생 '확진'

미국에서 유학중인 20대 남성 김모 씨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뒤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 기침·발열 등 증상이 없던 김 씨는 자택이 있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무증상자들과 함께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정부가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건 이번 달 1일부터라 김 씨는 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지난 9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부터 2주간 자가 격리가 시작됐지만 김 씨는 바로 당일 지침을 어겼다. 김 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집 근처 PC방을 찾아 2시간 동안 게임을 했고, 저녁에는 직접 음식점을 찾아 보쌈을 포장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에도 집 근처에 있는 PC방 두 곳을 찾았는데,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동안 머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했고, 저녁에는 돈가스 가게에서 약 40분 동안 식사를 한 뒤 걸어서 귀가했다. 명백히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후 김 씨는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김 씨처럼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다.

격리 대상자가 된 직후 김 씨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 격리 앱을 통해 매일 아침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한 내용을 전송해야 하지만 별 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그동안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벗어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고 지자체로도 격리 지역을 이탈했다는 알림이 발송되지만, 조사 결과 김 씨는 첫날 PC방과 식당을 찾았을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고, 이튿날에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면 격리 지역 이탈 경고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정보를 끈 상태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구청은 김 씨가 다녀간 PC방과 식당의 상호명과 방문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같은 시각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김 씨를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까지 김 씨 처럼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 관리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안심밴드)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유럽발 입국자와는 달리 의료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 일화적 프레임 실험 자극물

신규 확진자 절반이 '해외 유입'... 자가 격리 이탈도 속출

최근 2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 중 1명 이상이 해외유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0시부터 19일 0시 전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24명 중 55.2%인 234명이 해외에서 유입됐다. 특히 424명 중 8%인 34명이 해외유입 환자에 의해 감염된 2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돼,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는 60%가 넘는다.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이 81명(19.1%)으로 뒤를 이었고, 지역 집단발병 47명(11.1%), 선행 확진자 접촉 11명(2.6%) 순이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661명으로 이 가운데 998명이 해외유입 환자다. 유럽이 439명(44%)으로 가장 많고, 미주 431명(43.2%), 중국 외 아시아가 108명(10.8%)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34명으로 가족이 76명(56.7%)으로 자가 격리를 하는 입국자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 가족의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친구와 지인이 27명(20.1%), 직장동료 19명(14.2%), 기타 12명(9.0%)으로 2차 감염이 이뤄졌고, 지역 사회로의 3차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초 유럽 입국자에게만 적용하던 자가 격리 의무 방침을 이번 달 1일 0시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로 확대했다. 현재 자가 격리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5만여 명이 해외 입국자로 이 가운데 지난 1일에 입국한 7천 500명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일부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가 격리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당한 사람은 106명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김모 씨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 기간 중 사흘에 걸쳐 집 근처 PC방과 식당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자가 격리 앱이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 당국엔 경고 알림이 가지 않았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거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 할 경우 격리 지역 이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 관리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안심밴드)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유럽발 입국자와는 달리 의료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뉴스 프레임이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최종혁

(JTBC 기자/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소지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홍보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뉴스 프레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들의 인지적 반응인 책임 인식과 정서적 반응인 감정에 주목해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사례로 하여, 뉴스의 주요 프레임으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선정하고,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화적 프레임은 주제적 프레임보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분노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화적 프레임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매개로 처벌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프레임에 따른 사람들의 책임 인식의 차이를 재확인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보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의 역할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 뉴스 프레임,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책임 인식, 분노